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사찰소장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성보문화재 등록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구속된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에게서 압수한 불상과 불경들.

조계종 '성보문화재 등록제' 추진

비지정 문화재 보존 대책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도난방지와 보존을 위해 '성보문화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최근 문화재청과 함께 내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교문화재를 '성보문화재'로 종단에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공개화시켜 도난문화재의 유통을 어렵게 함으로써 도난위험을 줄이고, 보존을 위한 사찰 자체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보 일제조사 서둘러야

'문화재 등록제'는 1970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일반동산문화재 등록제'(제41조)로 실시된 적이 있다. '지정되지 않았거나 가치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실시됐던 이 제도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처벌규정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 1984년 폐지됐다. 문화재사범 검거시 소유자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검거율은 높일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등 실효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등록된 문화재는 국 · 공립 박물관 등 기관에서 소장유물 26만여 점에 그쳐 전국적으로 수백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장자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등록하지 않은 것도 폐지의 한 원인이었다.

때문에 '성보문화재 등록제'는 처벌규정보다는 일종의 '혜택'을 통해 자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정재훈 석좌교수는 "사찰문화재 전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는 비지정문화재일 경우, 동산문화재 등록규정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고쳐 비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보문화재 등록제'가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효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등 법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아야 실제적으로 도난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한 박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지정문화재에 한해 선의취득 적용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개정으로도 성보문화재로 등록된 비지정문화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문화재처럼 공개된 문화재는 문화재 해당여부, 도난 사실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성보문화재' 등록으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등록된 성보문화재가 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 개념에 대한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선의취득 예외' 등 법 개정

물론 개인 소장자들이 일반동산문화재 등록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인 "공개에 대한 위험부담"도 존재한다. "일부러 사찰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고 알리는 게 오히려 도난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용대 변호사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일제조사나 관련 법개정 등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1996년부터 실시한 전국 본 · 말사 성보문화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는 총 8만여 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만5천여 점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삼국유사 최초의 역사민속서"

최광식 교수, '일연국사 불교사상' 조명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인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 최초의 역사민속학적 사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열린 '제1회 일연 국사 불교사상 학술대회'에서 최광식 교수(고려대 · 사진)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불교사 인식을 통해 일연 스님의 역사인식을 살펴본 주제발표에서 "우리 민족의 전근대 사회에서 지배엘리트들은 대부분 지배층에 대한 자료들만을 남기고 있는데 비해 일연선사는 <삼국유사>에서 민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중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불교문화사를 다룬 <삼국유사> 권3 흥법편 이하 일곱 편에는 서민이나 거지 또는 남의 집 종이 선행을 통해 복덕과 과보를 받고, 그들을 도운 스님들이 국사가 되며, 심지어 귀족의 비녀였던 육면이 주인인 귀족보다 앞서 성불하는 것 같은 설화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예로 들며 "<삼국유사>는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민

"민중 신앙 · 생활 기록 가치"
"일연 스님 찬술 - 제자 간행"

족지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5 효선편은 모두 서민생활에 대한 설화"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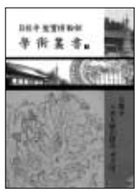
그러나 최 교수는 "<삼국유사>에 민중에 대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민중생활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다고 해서 일연이 민중주체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해도 "역사에 있어 민중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민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삼국유사>를 일연 스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학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삼국유사>는 일연선사가 중심이 되어 찬술했고 그 제자들이 스님 사후 간행했다"는 기존 학설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국민대 김두진 교수는 일연 스님의 저술, 민지가 찬술한 일연비와 그 음기,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승려들의 비문을 통해 스님의 대표적 불교사상인 '심존선관(心存禪觀)' 사상을 살펴봤다. 학술대회에 이어 25일에는 시 낭송회와 대구시립국악단 소속 단원들의 국악 공연이, 26일에는 일연국사 진영봉안 및 추모 다례제가 열렸다.

권형진 기자

성보박물관 개관 2년 월정사, 학술총서 발간



개관 2주년을 맞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최근 첫 번째 박물관 학술총서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재조명>을 펴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학술세미나와 특별전, 사진전을 꼼꼼히 다시 정리해 엮었다.

1970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해체시 발견된 사각자수향낭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수 유물임을 밝힌 권영숙 교수(부산대)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발견 수라향합낭 소고' 등 5편의 논문을 실었다. 한국전쟁으로 전소되기 이전 월정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지면에서나마 볼 수 있다.

관장 현해 스님(월정사 주지)은 "성보박물관에서 '학술 총서'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며 "지속적인 사찰 문화재 보존과 연구를 통해 고립되고 머물러 있는 유물전시관이 아닌, 살아있는 성보박물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각필로 새긴 부호구결이 발견된 진본 화엄경 권20.

성암박물관 소장 진본 화엄경 권20

'각필 부호 구결' 다수 확인

구결학회 첫 공개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에 토를 달아 한문 문헌을 읽던 방식인 구결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견됐다.

구결학회(회장 남풍현 단국대 교수)는 성암고서박물관(관장 조병순)이 소장하고 있는 진본 화엄경(晉本 華嚴經) 20권에서 구결의 가장 초기 형태인 각필(대나무 등을 깎아 만든 뾰족한 펜)로 찍은 부호구결을 다수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진본 화엄경은 지난해 7월 일본 고바야시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가 각필 흔적을 처음 확인한 고려 초조대장경(1011년)보다 앞선 것으로 1천년 전 한국의 음운과 문법, 방언과 존칭 등 언어현상은 물론 일본어와의 상관관계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구결학회 공동연구회에서 학회 회원과 학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정재영 기술교육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진본 화엄경은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리니경(751년)과 초조대장경(11세기) 사이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으로, 제목을 표시하는 방법이나 한자의 서체, 장(障)을 표시하는 이체자 등에서 신라 사경에서 보이는 언어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일본 법륭사 몽전 관음보살입상.

"日 법륭사 불상 백제인 조성"

'강좌 미술사' 16호 특집

일본 나라에 있는 법륭사는 일본 역사의 여명기에 해당하는 아스카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래됐음을 보여주는 각종 문화재들이 즐비한 곳이다.

물론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같은 한국 학자들의 주장을 무시한다.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불상으로 꼽히는 몽전 관음보살입상은 1884년 이를 처음 소개한 미국의 동양미술가 페놀로사가 '조선미술의 위대한 보물'이라고 극찬한 작품. 하지만 일본의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일본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반년간으로 펴내는 강좌 미술사 16호는 고대 한일불교미술교류사 복원의 열쇠인 '법륭사의 불교미술'을 특집으로 다뤘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논의에서 벗어나 법륭사의 역사, 건축, 조각, 공예, 회화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몽전관음과 백제관음 등 법륭사 불상들은 6세기 후반 내지 7세기 초기 백제 양식과 거의 일치한다"며 "다만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장인이 만든 것인지 백제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